세계 청년불자, 제주 4.3 상처 치유 나선다

WFBY 3월 15~18일 제주도 일대서 교환캠프

4.3추모제 · 심포지움 개최
사찰 참배 및 성지순례도
"청년불자들의 교류 계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세계 청년불자들이 상처 치유에 앞장선다. 세계불교청년우의회(World Fellowship Buddhist Youth, 이하 WFBY)는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2018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천사, 관음사 등 사찰 참배와 함께 제주4.3 국제 합동추모제, 4.3평화기념관 탐방, 4.3심포지엄 등이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대한불교청년회 제주지구(회장 김보성, 이하 제주불교청년회)가 주관하며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중 WFB 20명, WFBY 80명 등 100명이 해외 청소년 불자들이다. 제주불교청년회 측에 따르면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 중 최대 규모다.

이들은 3월 15일 제주도에 도착해 빠레브호텔에서 개회식을 가진 후 팀을 짠다. 이어 16일 약천사 참배에 이어 제주 성지순례길 및 올레길을 탐방한다. 이어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일본군 진지, 4.3 유적지를 답사하며 저녁 늦게 '제주 4.3 심포지엄'을 갖는다.

17일에는 성읍리 민속마을 탐방과 함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국제합동 추모제를 연다. 또 4.3평화기념관을 탐방한다. 폐회식에서는 각 국가 전통의상 콘테스트도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김보성 제주불교청년회장(조직위원장)은 "2001년 첫 행사를 시작해 올해로 11회 째를 맞이했다"면서 "제주4 · 3 7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아 4 · 3 7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이 의미를 기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주관하는 제주불교청년회 측은 이번 캠프에 앞서 제주 4.3 사건과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불교를 알리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으며,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4.3사건은 이념이 빚어낸 비극"이라며 "청년불자들이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향후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해외 각국의 청년들과 우리나라 청년불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WFBY는 청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포교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전 세계 불교청년단체의 국제 네트워크로서 1972년 5월 23일 설립됐다. 본부는 태국 방콕에 두고 있으며 현재 WFBY는 18개국 38개 지역 센터로 확대됐다.

"네 마음 가져오면 너를 편안케 해주겠다"

3월 1일 백담사 동안거 해제법회서 무산 스님 법문
한철 보낸 자승 스님 "입 떼는것이 허물" 禪화두로 소회



3월 1일 인제 백담사서 열린 동안거 해제 법회에 참석한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무산 스님.

청법의 예를 갖춘 대중의 삼배가 끝나자 법상에 오른 조계종립 기본선원 조실이자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선사는 준비해 온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무문관 41칙 달마 안심법문을 읽겠습니다. 달마대사가 면벽(面壁) 하고 있을 때였다. 혜가는 눈 속에서서 팔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다. 제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말했다. 네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 주리라. 혜가가 다시 말했다.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내가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였다. 이번에도 지난해 하안거 해제 법문때와 마찬가지로 헛공부 하지말라는 촌철살인의 큰 울림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무산 스님의 안거 법문은 해마다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세상과 현실에 대한 지혜를 직설화법으로 쏟아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부담스러워 한 스님은 3년전부터 조계종 종정 스님의 안거 법어를 대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지난 하안거 해제때에는 처음으로 1분도 안되는 간결한 '이심전심' 법문을 통해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3월 1일 오전 10시 강원도 인제 설악산 백담사는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종립기본선원 56명, 백담사 무문관 12명, 신흥사 향성선원 12명 등 총 80명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고 정진 했다. 이중에는 퇴임후 곧바로 무문관에 방부를 들인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해제법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자승 스님에게 무문관서 보낸 소감을 묻자 "안거 기간 동안 묵언 수행을 해 입을 떼기가 어렵다"며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바로 허물"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해제 법회가 끝난 직후 백담사 경내 봉정당에서 자승 스님과 자리를 같이 한 무산 스님은 "자승 스님의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걸로 안다. 그만큼 열심히 수행한 것이 아닌가"라며 웃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인제 백담사=김주일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세계로 뻗어간다

캐나다 밴쿠버 현지 상영 추진… 2019 공동개최 목표

서울노인福 신년 사업계획 발표
선배시민 · 존중 · 공감 키워드로
분야별 전문선배시민 양성 나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 사진)가 신년 사업설명회서 서울노인영화제의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23일 센터 3층 공연장서 '2018 서울노인복지센터 사업설명회'를 진행, 선배시민 · 존중 · 공감을 키워드로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국내 유일 노인관련 단편영화제인 서울노인영화제의 캐나다 밴쿠버 상영 등 해외진출 포부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노인중심 영화제다. 캐나다 얼TV(All TV)에서 먼저 복지관으로 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현재 동시상영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시작단계인 만큼 밴쿠버와 함께 상영을 하고, 이후 캐나다 교포 1세대 어르신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밴쿠버와 함께 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분야별 전문 '선배시민양성'을 위한 사업도 발표했다. 센터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또 다른 어르신을 교육하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배움을 넘어 실천으로 확장한다는 기조다. 실버도슨트가 직접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을 방문해 문화를 교류하는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 종묘와 탑골공원 인근 조성된 어르신문화특화거리에서 진행되는 북콘서트,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공방, 치매예방 캠페인과 식생활 교육, 어르신 커피트레이너가 어르신 바리스타를 키워내는 교육프로그램 등 선배시민이 동년배는 물론 다른 세대와 지역사회에 적극 다가서는 사업을 진행한다.

희유 스님은 "개인적인 배움에서 그간의 경험을 다른 세대와 지역사회에 나누고 실천하는 선배시민의 모델을 구현하겠다. 그러면서 자신과 상대의 일상을 존중하고 돌보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결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공감 중심의 서비스를 어르신들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해 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전통醬, 이제는 일자리 창출로

종로노인복, 장카페 통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카페서 서울시 어르신 채용↑
장 체험관 · 외국인 관광객 연계
프로그램 공개범위 확대되기도



지난 수년간 전통장을 보존 · 전승해 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장(醬)카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 사진)은 2월 27일 관내 장카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재수탁에 의한 5개년 운영목표와 중점사업 등을 발표했다. 복지관은 △인권가치 중심, 민주주의 복지관 실현 △소통, 지역중심 참여기반 신노인문화 확산 △공존,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공동체 구축 △미래예측, 변화주도 복지 프로세스 확립을 5년 운영목표로 잡았다. 정관 스님은 특히 "올해는 복지관의 문을 활짝 열어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나누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 쓸 계획이다. 그 중심에는 종로노인복지관의 자랑인 장 관련 사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복지관 유일의 장카페는 올해 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된다. 장카페에는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이 취직할 수 있으며, 장상품 및 음료 판매와 전통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맡게된다. 관련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 '종로&장금이'는 지난해 서울시 시장형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장 체험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전망이다. 여행업체와 연계해 장 체험을 코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한국의 장을 만들어보고 맛보고 사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 7일에는 장독분양사업 '우리 동네 장담그는날'이 개최된다. 노인세대의 재능나눔의 일환으로 전통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종로구민들만 참여가 가능했던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는 서울시민 전체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신년 사업을 설명한 정관 스님은 "항상 열려있는 민주주의적 복지관, 소통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지금부터는 안정적으로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복지관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올림픽과 템플스테이 "함께 win-win"

전 세계 언론 템플스테이 극찬, 참가자도 대폭 늘어

평창동계올림픽과 템플스테이가 함께 홍보를 하며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지역 템플스테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2월 23일 밝힌 뒤 외신 및 국내 언론에 소개된 템플스테이와 저명인사 방문, 대폭 늘어난 참가자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월정사에 120명의 중국기자단(2/9)과 라트비아 대통령(2/10) 방문, CNN기자의 템플스테이 체험 등이 이어졌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강릉 페스티벌 파크 내 홍보관서 강원도 템플스테이를 소개했고, WTHR, Asia Times 등 해외언론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추천하는 한국 문화체험으로 템플스테이를 꼽았다. 특히 강원도 5개 사찰(낙산사 · 백담사 · 삼화사 · 신흥사 · 월정사)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만 1000여 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사업단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강원 5개 사찰서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참가비를 최대 8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호섭 기자

